

학습영역	작품	작가	쪽수
적용학습 갈래복합 01강	열하기유	서호수	-
적용학습 갈래복합 01강	연행가(6)	홍순학	2
적용학습 갈래복합 02강	나무도 바이 돌도 없는~(8)	작자 미상	4
적용학습 갈래복합 02강	사씨남정기(7)	김만중	7
적용학습 갈래복합 03강	의산문답(7)	홍대용	11
적용학습 갈래복합 03강	추사 글씨	김용준	-
적용학습 갈래복합 04강	존재의 테이블	나희덕	-
적용학습 갈래복합 04강	구부러진 길	이준관	-
적용학습 갈래복합 05강	금 따는 콩밭(7)	김유정	14
적용학습 갈래복합 05강	토막(9)	유치진	19
적용학습 갈래복합 06강	최척전(10)	조위한	24
적용학습 갈래복합 06강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10)	윤홍길	29
적용학습 갈래복합 07강	정시자전	석식영암	-
적용학습 갈래복합 07강	소전(3)	박제가	34
적용학습 갈래복합 08강	강호사시가(8)	맹사성	35
적용학습 갈래복합 08강	상춘곡(10)	정극인	38
적용학습 갈래복합 08강	곡목설(9)	장유	42
적용학습 갈래복합 09강	산은 적적 월황혼에~	작자 미상	-
적용학습 갈래복합 09강	만연사(10)	안도환	46
적용학습 갈래복합 09강	세 선비의 꿈	성현 역음	-
적용학습 갈래복합 10강	고가	정한숙	-
적용학습 갈래복합 10강	산은 알고 있다	신석정	-
적용학습 갈래복합 11강	조깅	황인숙	-
적용학습 갈래복합 11강	종소리	이재무	-
적용학습 갈래복합 12강	탈향(11)	이호철	51
적용학습 갈래복합 12강	눈길(12)	이청준	57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6년 수능 / 해설 1~2쪽)

좌우에 탁자 놓아 만권 서책 쌓아 놓고
 ㉠자명종과 자명악은 절로 울어 소리하며
 좌우에 당전(唐氈) 깔고 담방석과 백전요며
 ㉡이편저편 화류교의(樵榴交椅) 서로 마주 걸터앉고
 — 거기 사람 처음 인사 차 한 그릇 갖다 준다
 화차종에 대를 받쳐 가득 부어 권하거늘
 파르스름 노르스름 향취가 만구하데
 저희들과 우리들이 언어가 같지 않아
 말 한마디 못 해 보고 덤덤하니 앉았으니
 [A] 귀머거리 병어린 듯 물끄러미 서로 보다
 천하의 글은 같아 필답이나 하오리라
 당연(唐硯)에 먹을 갈아 양호수필(羊毫鬚筆) 덤뻑 찍
 어
 시전지(詩箋紙)를 빼어 들고 글씨 써서 말을 하니
 묻는 말과 대답함을 글귀 절로 오락가락
 — 간담을 상응하여 정곡(情曲) 상통(相通)하는구나
 (중략)
 — 황상이 상을 주사 예부상서 거행한다
 삼 사신과 역관이며 마두와 노자(奴子)까지
 은자며 비단 등속 차례로 받아 놓고
 삼배(三拜)에 구고두(九叩頭)*로 사례하고 돌아오니
 상마연* 잔치한다 예부에서 지휘하기로
 삼 사신과 역관들이 예부로 나아가니
 [B] 대청 위에 포진하고 상을 차려 놓은 모양
 메밀떡에 밀다식에 걸밤 머루 비자(櫃子) 등물(等物)
 푸닥거리 상 벌이듯 좌우에 떠벌였다
 다 각기 한 상씩을 앞에다 받아 놓으니
 비위가 뒤집혀서 먹을 것이 전혀 없네
 삼배주를 마시는 듯 연과(宴罷)하고 일어서서
 뜰에 내려 북향하여 구고두 사례한 후
 — 관소로 돌아와서 회환(回還) 날짜 택일하니
 ㉢사람마다 짐 동이느라 각 방은 분분하고
 흥정 외상 셈하러 주주리는 지저귀다
 ㉣장계(狀啓)를 발정(發程)하여 선래 군관(先來軍官) 전송
 하고
 추철월 십일일에 회환하여 떠나오니
 한 달 닷새 유하다가 시원하고 상연(爽然)하구나
 천일방(天一方) 우리 서울 창망하다 갈 길이어
 풍진이 분운(紛紜)한데 집 소식이 돈절하니
 사오 삭(朔) 타국 객이 귀심(歸心)이 살 같구나
 승문문 내달아서 통주로 향해 가니
 ㉤올 적에 심은 곡식 추수가 한창이요
 서풍이 샅샅하여 가을빛이 쾌히 난다
 — 홍순학, 「연행가」-

* 구고두 : 공경하는 뜻으로 머리를 땅에 아홉 번 조아림.
 * 상마연 : 일을 마치고 떠나는 외국 사신들을 위하여 베풀던 잔치.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경이로운 풍광에 대한 감상을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다.
 - ② 학문과 관련된 사물을 나열하여 입신양명에 대한 화자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객지에서의 낯선 풍물 및 경험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회환할 때의 심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④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의 외양과 감정을 개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제시하여 귀국까지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2.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 지시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와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이동을 앞둔 여유로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새로운 계책을 마련한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고 있다.
3. [A], [B]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간담을 상응하여’는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을, [B]에서 ‘뜰에 내려 북향하여’는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군.
 - ② [A]에서 ‘우리들’은 ‘거기 사람’에게 인사로 차를 대접받고, [B]에서 ‘삼 사신’ 일행은 ‘예부상서’를 통해 황상의 상을 하사받고 있군.
 - ③ [A]에서 ‘필답’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단을, [B]에서 ‘구고두’는 의례적 상황에서 감사를 표하는 공식적 예법을 나타내는군.
 - ④ [A]에서 ‘글귀 절로 오락가락’은 난처한 상황이 해소되고 있음을, [B]에서 ‘비위가 뒤집혀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드러내는군.
 - ⑤ [A]의 ‘귀머거리 병어린 듯’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B]의 ‘메밀떡에 밀다식에 걸밤’ 등은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 놓은 상황을 알려 주는군.

[04~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년 파이널 모의고사 / 해설 2쪽)

- * 마두 서자: ‘마두’는 역마(驛馬)를 맡아보던 사람, ‘서자’는 각역에서 일하던 벼슬아치.
- * 이측: 부모님 곁을 떠남.
- * 이위정: 부모님 곁을 떠나는 정.
- * 돛해기름: 돼지기름.
- * 준총: 걸음이 몹시 빠른 말.

* <보기>를 참고하여 35번과 3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 < 보 기 > —

I. 사행 가사(使行歌辭)는 조선 후기의 지식인들이 사신 행차의 일원으로 외국을 여행하면서 체험한 것을 사실적으로 읊은 가사를 말한다. 사행 가사의 작가들은 여정과 풍경, 외국의 문물과 풍속 등을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묘사하는데, 이때 객관적인 사실과 자신의 느낌이나 평가 등을 적절하게 섞어 전달하고 있다.

II. 홍순학은 고종의 왕비를 책정할 일로 청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 공문서 작성이나 기록을 맡아보던 서장관(書狀官)으로 연경(燕京)에 다녀왔다. 「연행가」는 이 일을 두고 지은 것으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사행 가사로 평가받고 있다.

4. <보기> I 을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송객정에서 전별하는 상황을 통해 화자가 사행(使行) 중임을 알 수 있군.
- ② (가)에서는 기생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과 관련지어 화자의 심란한 느낌을 드러내고 있군.
- ③ (가)의 도강 날짜와 화자가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는 여정 등은 객관적인 사실이겠군.
- ④ (나)에서는 화자가 호인들의 반찬을 보며 문화적 친근감을 느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군.
- ⑤ (나)에서는 화자가 호인들이 가축을 키우고 다루는 풍속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묘사하고 있군.

5. ㉠~㉣ 중, (보기) II 의 ‘서장관’의 신분이나 역할과 관련이 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6. [A]와 [B]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B와 달리 A는 자연물을 통해 복합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A와 달리 B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대조를 통해 시적인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색채어를 활용하여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는 사실의 기술이, B는 관념의 표현이 부각되고 있다.

(가)

하 오월 초칠일의 도강 날자 정하였네.
 ㉠방물을 점검하고 행장을 수습하여
 압록강변 다다르니 송객정이 여기로다.
 의주 부운 나와 안고 다담상을 차려 놓고,
 삼 사신*을 전별할새 처창기도 그지없다.
 일배일배 부일배는 서로 앉아 권고하고,
 상사별곡 한 곡조를 차마 듣기 어려워라.
 ㉡장계를 봉한 후의 떨뜨리고* 일어나서,
 [A] 거국지회* 그지없어 억제하기 어려운 중
 홍상*의 꽃눈물이 심회를 돕는다.
 ㉢육인교를 물려 노니 장독교를 등대하고,
 전배 토인* 하직하니 일산 좌견뿐만 있고,
 공형 급창 물려서니 마두 서자*뿐이로다.
 일엽 소선 배를 저어 점점 멀리 떠서 가니,
 푸른 봉은 첩첩하여 날을 보고 즐기는 듯,
 백운은 요요하고 광색이 참담하다.
 비치 못할 이내 마음 오늘이 무슨 날이고.
 출세한 지 이십오 년 시하의 자라나서
 평일의 이측*하여 오래 떠나 본 일 없다.
 반 년이나 어찌할고, 이위정*이 어려우며,
 ㉣경기 지경 백 리 밖에 먼길 다녀 본 일 없다.
 한 줄기 압록강이 양국지경 나뉘었으니,
 ㉤돌아보고 돌아보니 우리나라 다시 보자.

(나)

반찬이라 하는 것은 돛해기름* 날과 나물,
 큰 독의 담은 장은 소금물의 메주 넣고,
 날마다 가끔가끔 막대로 휘저으니,
 죽 같은 된장물을 장이라고 떠다 먹대.
 호인의 풍속들이 짐승치기 숭상하여,
 준총* 같은 말들이며 범 같은 큰 노새를
 굴레도 아니 씌우고 재갈도 아니 먹여
 백여 필씩 앞세우고 한 사람이 몰아 가대,
 구유의 들어서서 달래는 것 못 보겠고,
 양이며 돼지를 수백 마리 때를 지어
 조고마한 아이눔이 한둘이 몰아 가대,
 대가리를 한데 모아 헤어지지 아니하고,
 [B] 집채 같은 황소라도 코 안 뚫고 잘 부리며,
 —조고마한 당나귀도 멧돌질을 능히 하고,
 대닭 장닭 오리 거위 개 고양이까지 기르며,
 발발이라 하는 개는 계집년들 품고 자네.
 - 홍순학, 「연행가」 -

- * 삼 사신: 정사, 부사, 서장관의 세 사신.
- * 떨뜨리고: 거만하게 뽐내고.
- * 거국지회: 나라를 떠나는 감회.
- * 홍상: 아름다운 여자, 여기서는 기생.
- * 전배 토인: 가마의 앞에 서는 통인.

정답 및 해설

• 갈래복합 •

정답

1	③	2	⑤	3	①	4	④	5	②
6	①	7	③	8	③	9	④	10	②
11	⑤	12	②	13	④	14	③	15	②
16	④	17	①	18	⑤	19	④	20	①
21	③	22	⑤	23	⑤	24	③	25	②
26	⑤	27	해설	28	해설	29	⑤	30	⑤
31	③	32	②	33	⑤	34	①	35	③
36	④	37	⑤	38	①	39	①	40	④
41	해설	42	③	43	③	44	③	45	⑤
46	①	47	①	48	③	49	①	50	①
51	④	52	②	53	⑤	54	②	55	④
56	②	57	⑤	58	④	59	②	60	④
61	④	62	②	63	②	64	③	65	④
66	③	67	①	68	⑤	69	②	70	④
71	⑤	72	②	73	④	74	②	75	③
76	①	77	③	78	④	79	①	80	②
81	⑤	82	④	83	②	84	③	85	⑤
86	④	87	③	88	④	89	②	90	②
91	③	92	③	93	④	94	⑤	95	①
96	⑤	97	①	98	②	99	③	100	②
101	③	102	④	103	②	104	③	105	③
106	①	107	⑤	108	②	109	⑤	110	⑤
111	⑤	112	③	113	③	114	①	115	②
116	②	117	⑤	118	⑤	119	⑤	120	④
121	②	122	④	123	⑤	124	④	125	⑤
126	③	127		128		129		130	

해설

1.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이 글에서 연행을 하는 화자는 청나라에서 자명종, 자명약 같은 낯선 풍물을 접하고, 청나라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 필담을 나누고, 황궁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한 체험에 대한 다양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회환 날짜를 정해 귀국할 때의 시원하고 상쾌한 심정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자연의 경이로운 풍광에 대한 감상을 장황하게 서술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② ‘당연(唐硯)에 먹을 갈아~시전지(詩箋紙)를 빼어 들고’를 학문과 관련한 사물을 나열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것은 필담을 위한 과정을 제시한 것이지 화자의 입신양명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④ 청나라 황궁의 공식적 행사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이 글에서 행사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의 외양과 감정을 묘사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⑤ ‘곡식 추수가 한창이요’를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송문문 내달아서 통주로 향해 가니’로 볼 때 화자는 귀국하는 도중이지 여정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2.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은 ‘울 적에 심은 곡식 추수가 한창이요’라는 가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통해 ‘울 적(청나라로 출발할 때)’에서 시간이 한참 경과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절로 울어 소리하며’에서 청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으나, 이것은 대상이 지닌 슬픔을 표현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② ‘이편저편’이라는 지시적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상대와의 친밀감을 드러내는 상황이 아니라 처음 만난 사람들이 고급 목재로 된 의자에 마주 앉은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행의 ‘처음 인사’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은 귀국 준비를 위해 바쁘게 짐을 싸고 있는 것이지 여유로운 분위기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분분하고’는 음성 상징어가 아니라 형용사로, 떠들썩하고 뒤숭숭한 상황을 나타낸다.
 ④ ㉢의 앞 구절과 뒷 구절을 대구적 표현으로 볼 여지는 있

으나 새로운 계책을 마련한 기쁨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A]의 ‘간담을 상응하여’는 상대방에게 마음을 터놓는 상황으로 경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며, [B]의 ‘뜰에 내려 북향하여’는 청나라 황제에게 사례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A]의 ‘거기 사람 처음 인사 차 한 그릇 갖다 준다’와 [B]의 ‘황상이상을 주사 예부상서 거행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A]에서는 ‘필담’을 통해 서로 간에 간곡한 정을 전달하고 있으며, [B]의 ‘구고두’는 청나라 시대에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려 절하는 공식적 예법으로, 황상(황제)이 조선 사신 일행에게 상을 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은혜에 의례적인 감사를 표하는 것이다.
- ④ [A]의 ‘글귀 절로 오락가락’은 필담을 통해 비로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B]의 ‘비위가 뒤집혀서’는 푸짐한 잔치상을 받았으나 막상 먹을 것이 없는 곤란한 상황을 드러낸 것이다.
- ⑤ [A]의 ‘귀머거리 병어린 듯’은 언어가 같지 않아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B]의 ‘메밀떡에 밀다식에 걸 밤’은 음식을 나열하여 잔치상에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 놓은 상황을 알려 주고 있다.

4.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화자는 호인들의 반찬을 보며 신기하게 여기고 있을 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주 부윤이 송객정에서 전별하는 상황에서 ‘삼 사신(정사, 부사, 서장관)’, ‘장계’ 등의 용어가 나오는데, 이를 통해 화자가 사신 행차의 일원으로 여행 중임을 알 수 있다.
- ② ‘홍상의 꽃눈물이 심회를 돕는다.’는 기생이 우는 모습과 관련지어 나라를 떠나는 화자의 심란한 느낌을 드러내는 것이다.
- ③ 도강 날짜인 ‘하 오월 초칠일’,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 청나라에 입국하는 여정은 객관적 사실이다.
- ⑤ (나)는 여러 가지 가축을 기르고 ‘말, 노새, 양, 돼지, 황소’ 등의 가축을 잘 몰고 부리는 청나라 사람들의 풍속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묘사하고 있다.

5. [출제의도] 화자의 정서, 태도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서장관은 삼 사신 중 하나(서열 3위)로 사신을 보낼 때 기

록을 맡아보던 신분이다. 임금께 드리는 보고서인 장계를 작성하고 뺨내고 일어나는 모습에서 서장관의 신분과 역할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도강을 앞두고 중국으로 가지고 갈 물건이나 여행 물품을 점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 ③ 국경을 건너기 전에 가마를 바꾸어 타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 ④ 뒤에 이어지는 ‘허박하고 약한 기질 만 리 행역 걱정일세.’와 연결할 때 장거리 여행길에 대한 화자의 염려와 불안한 심리를 엿볼 수 있다.
- ⑤ 고국을 떠나는 애뜻하고 아쉬운 심정이 담겨 있는 행동이다.

6.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푸른 봉은 첩첩하여 날을 보고 즐기는 듯’은 객체인 자연물(푸른 봉)이 주체인 ‘나(화자)’를 보는 것으로 주체와 객체를 바꾸어 화자의 즐거움을 드러낸 것이고, ‘백운은 요요하고 광색이 참담하다.’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쓸쓸함을 드러낸 것이다. 즉 A는 자연물을 통해 복합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B의 ‘집채 같은 황소’는 과장법으로 볼 수 있으나 그것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 ③ B의 ‘집채 같은 황소’와 ‘조그마한 당나귀’를 대조로 볼 수 있으나, 시적인 긴장감을 고조하는 것은 아니다.
- ④ A에만 ‘푸른’, ‘백운’ 같은 색채어가 나타난다.
- ⑤ A는 ‘거국지회’라는 관념적 측면에, B는 청나라에서 목격한 사실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